

광주시교육청, 글로벌 인재 키운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발대식 민주·역사·해외봉사·실용예술 등 16개 프로그램 480여명 참여 예정

광주시교육청이 '2024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시작됐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2024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발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참가 학생과 인솔 교사, 학부모 등 500여 명이 함께 했다.

올해 발대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과 인솔교사가 운영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연대감

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국의 현장 체험활동 중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안전한 체험활동이 이뤄지도록 안전교육과 분과별 사전교육 역시 진행했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은 이 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광주 학생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가 5·18 민주화운동과 K-culture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겸한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특징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체험활동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실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작년 총 12개 프로그램 331명이 참가했고, 올해는 기존 민주·인권, 평화·통일, 역사·문화, IT·AI, 문화·예술, 진로·직업, 언어·일반, 해외 봉사 분야 등에서 다문화, 생태전환, 과학, 실용예술 및 체육, 독서 등 새로운 분야가 추가돼 총 16개 프로그램, 480여 명 학생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발대식은 올해 국의 현장 체험활동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올해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자리가 돼 더욱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으로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2025 대입정보 한눈에' 전남교육청 박람회

13일 초당대·14일 전남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025 대학입시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규모 박람회가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2025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입정보 박람회는 오는 13일 초당대학교, 14일 전남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다.

박람회는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선발 등 변수

가 많아진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수험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리라고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서울대 등 전국 82개 대학의 대학별 맞춤형 상담은 물론 진로진학상담센터 대입상담교사와 함께하는 1대1 수시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별 상담 및 입학전형 설명회는 사전 예약 없

이 누구나 참여, 관심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대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입상담교사 1대1 수시상담은 지난 3일 사전신청과 함께 마감됐다.

조기 접수 마감으로 1대1 수시 상담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는 전남교육청진로진학지원포털을 통해 목포·나주·순천·여수·광양 등 5개 권역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대입지원관에게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은섭 전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대입정보 박람회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해 정보제공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강대, 29일 글로벌 비전 선포식 'K-컬처 페스티벌'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으로 대학 경쟁력을 전 세계로 넓혀간다.

동강대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본관 5층 나이트게일홀에서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호남권 대학 최초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제1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동강대는 25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고 특히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K-컬처 페스티벌'은 동강대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의 후원으로 테마가 있는 'K-POP 콘테스트', 주제가 있는 'K-한글 콘테스트' 2개 행사가 진행된다.

페스티벌은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 유학생 및 근로자 등 대한민국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행사 포스터의 'QR 코드'에 접속해 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안내된 이메일(hanmm-dku2015@daum.net)로 참여부문의 동영상을 발송하면 예선 접수가 완료된다.

'K-POP 콘테스트'는 외국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강대 한만민 학생지원처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화를 이해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해 지역 대학의 책임 뿐 아니라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으로 굳게 자리 잡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몽골 유학생 유치...국제교류 활성화

울란바토르·다르항 지역 방문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총장 임기 중 '유학생 1000명 목표' 달성을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와 다르항 지역을 방문해 몽골 유학생 유치를 적극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강성승 공과대학장, 김용섭 행정복지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조선대 방문단은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몽골 협력 기관들을 방문하여 유학생 학위과정 공동 프로그램과 유학생 유치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 등에 협의했다.

<사진>

이번 방문의 주요성과는 ▲울란바토르 제18번 학교 및 다르항도 교육청과 교류 협약 체결 ▲몽골 과학기술대학교와 조선대 대학원의 일부 전공에

공동 프로그램 협의 ▲울란바토르시 제24번학교, 제72번학교 교장 업무협의를 통한 유학생 유치방안 협의 등이다. 특히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울란바토르 제18번학교는 몽골에서 최초로 한국어교육을 시작한 학교로, 외국어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몽골 최고의 국립학교 중 하나이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이번 방문이 조선대와 몽골 교육기관과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몽골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교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는 몽골 내 교육기관과 2014년에 처음 교류 협약을 맺은 후, 현재까지 14곳의 교육 및 행정 기관과 교류를 쌓아오며 국제교류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동신대, 글로벌대학 본지정 위한 계획 수립

전남도와 컨설팅 회의

교육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을 받은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가 글로벌대학 본지정을 위한 혁신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최근 중앙도서관 1세미나실에서 전라남도과 컨설팅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컨설팅에는 전남도 정영린 교육개혁지원관과 김세연 대학혁신과장, 김동욱 글로벌인재팀장, 동신대학교 전진 부총장과 김성수 기획처장, 순천대 문승태 대외협력부총장과 박현식 지산학협력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대학 전략을 공유하고, 전남도 전략사업과 연계한 글로벌대학 추진방안과 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산·학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공공형사립연합

대학(UCC) 구축을 위해 연합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유연한 공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동신대학교는 초당대·목포과학대와 함께 지역 공공형 사립연합대학(UCC)을 구축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전남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혁신기획안을 제출해 지난 4월 교육부 2024 글로벌대학으로 예비 지정됐다.

동신대는 이날 제시된 안을 수렴해 혁신적인 실행계획서를 완성해가는 한편 전라남도, 기초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대학 본지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전남도와 5개 시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특화분야 앵커기업들이 참여하는 글로벌대학 발대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오는 7월 말 글로벌대학 UCC 단일 거버넌스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